

http://dx.doi.org/10.17703/JCCT.2019.5.4.67

JCCT 2019-11-9

수도권 공설 화장장의 산골시설 인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Scattering Ash Facilities in Metropolitan Public Crematorium

남윤주*, 이필도**

Yunju Nam*, Pil-Do Lee**

요약 화장률의 증가로 매장중심에서 화장중심의 문화로 바뀐 우리나라는 봉안을 선호하였으나 봉안시설의 사후 처리문제 등으로 화장한 유골의 새로운 처리 방법인 '자연장 제도'를 도입했다. 화장이후 봉안과 자연장 방법 이외의 산골도 요구되고 있으나 현실까지는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는 화장한 유골을 처리하는 산골에 대한 문헌고찰을 장사등에관한 법률에서 정한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시설'에 대해 현황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시설은 공설 화장시설 58개소 중 총 42개소가 있었는데 그중 40개소 시설의 명칭이 유택동산이었다. 수도권 공설 화장 시설 종사자에게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시설'인 산골시설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95.9%가 산골시설을 알고 있다고 했으며 88.2%는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답하였다. 본 연구는 현황조사와 분석결과를 토대로 산골의 법제화와 산골시설의 다양화 및 현대화 등 개선방안을 제언하고 있다.

주요어 : 산골시설, 유택동산, 공설 화장시설, 종사자 인식

Abstract Korea, which has changed from burial-oriented culture to cremation culture due to the increase of cremation rate, preferred charnel: however, we have adopted the new processing method of cremated remains, 'natural burial' because of deterioration of charnel facility and the problems with imposed urns. Ashes are absolutely required due to the inefficient use of territory for charnel and natural burial and natural environment pollution, but this is out of legislative system in reality. This study will hold an investigation research on ashes that handles cremated remains which is not mentioned in 'Act on Funeral Services, Etc.' as well as investigate the present-condition of 'facilities for scattering cremated ashes,' as prescribed by law. As a result, there were 42 public crematoriums with a place for scattering cremated ashes, and the name of 40 of them were hill of grave. We conducted a survey to see if the workers at public cremation faciliti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knew about hill of grave, 'the facilities for scattering cremated ashes.' The result showed 95.9% knew about hill of grave and 88.2% answered some improvement was partially needed. Therefore, this study is to propos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scattering ashes facilities of public crematoriums based on the results of research and present investigation.

Key words : Scattering ashes, Scattering facility, a place for scattering ashes, Hill of grave, Perception of Workers.

*준회원,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박사과정 대학원생 (제1저자)

**정회원,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19년 9월 26일, 수정완료일: 2019년 10월 8일

게재확정일: 2019년 10월 13일

Received: September 26, 2019 / Revised: October 08, 2019

Accepted: October 13, 2019

*Corresponding Author: pdlee@eulji.ac.kr

Ph. D. Professor, Department of Mortuary Eulji Univ., Korea

I. 서론

보건복지부에서는 2017년 화장률이 84.6%로 최종 집계되었다고 발표했다. 1993년도 19.1%에 불과하였던 화장률이 24년 동안 4.4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화장시설의 현대화, 산사태와 같은 자연 재해의 발생, 장지관리자의 부재, 세대간 제사의식 준수 관념의 축소, 지역적 연고성의 퇴색 등 사회문화의 변화가 화장률을 증가시켰다고 볼 수 있다. 베이비부머의 고령화가 시작되었고 시한부매장제도로 인해 공설 및 사설공원묘지에 매장되어 있는 분묘들은 설치기간 종료일이 도래하면 가장 유골용 더 많이 발생시키므로 화장한 유골의 처리문제에 대한 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2001년 시한부매장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처리하게 되어 역시 대량의 화장한 유골이 발생하게 될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는 묘지 뿐 아니라 봉안시설에서도 발생 가능하다. 대량으로 발생하는 화장한 유골의 처리 문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대안을 산골에서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2008년 「장사등에 관한법률」(이하 장사법)의 전문개정시 제2조제3항 자연장과 제13항의 자연장지 항목을 신설하였다.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정의를 하고 있다). 그런데 골분을 뿌리는 산골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전통산골이 법적 근거가 없는 방법으로 전락되었다. 이후 산골은 법적 근거 부재논란으로 인해 강과 산을 오염시키고 환경관리법을 위반하여 아무데나 뿌리면 벌금을 낸다는 등의 근거없는 이야기들이 많았다. 현재 봉안시설, 자연장지, 수목장립, 유택동산, 해양장(해양산골), 산골장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화장한 유골을 처리하고 있지만 화장한 유골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장, 수목장립, 산골의 개념을 혼동하여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자연장 및 산골의 개념과 정의가 정립되지 못한 데에 문제가 있다. 저출산율과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묘지나 봉안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가족이 줄어들고 봉안과 자연장만으로 화장한 유골을 처리하는 것이 더 이상 대안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다. 산골이 불법인지 합법인지에 대한 논란의 중심에 있지만 향후 개선방안이 마련되면 산골은 화장 이후의 장법의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골에 대한 의미를 이론적으로 고찰해 보고, 수도권 공설화장시설에 있는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시설’인 산골시설의 현황과 종사자의 의식을 조사해서 현재 공설화장시설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산골시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산골의 의미

한국민속대백과사전에는 한국일생의례사전 중에서 일생의례의 상장례 부분에 “화장한 유골을 가루로 만들어 지정된 장소나 산·강·바다 등에 뿌리는 것이 산골”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1]. 산골은 예로부터 행해져왔던 전통장법이라고 할 수 있다. 2003년 서울시는 ‘화장 및 봉안’에서 ‘화장 및 산골(散骨)’로 장사정책을 전환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런데 2008년 ‘자연장’이 장사법에 도입되었고, 그 이후 장사법의 테두리 밖으로 밀려난 산골 방법은 자연에 산골하는 것도, 바다에 뿌리는 것도 불법으로 생각하고 있다. 화장한 유골을 어떻게 처리했느냐하는 방법에 따라 자연장은 ‘땅에 묻는다’는 개념으로 산골은 ‘뿌린다’는 것으로 달리 인식된다. 현재 화장한 유골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방법과 장소에 따라 봉안, 자연장, 수목장립, 산골 등으로 나눌 수 있다(Figur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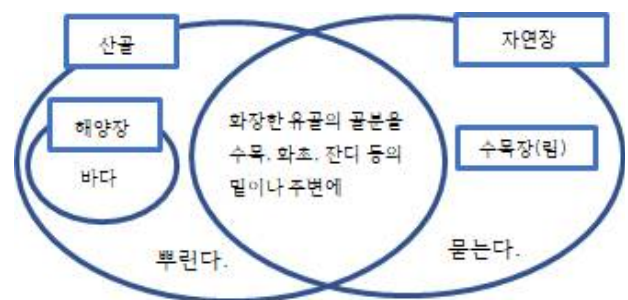


그림 1. 화장한 유골의 다양한 처리형태
Figure 1. Various forms of disposal of cremated ashes

해외에는 우주를 이용한 산골도 등장했는데 역시 ‘뿌린다’의 방법에 속하므로 산골의 범주로 볼 수 있다. ‘우주’라는 장소에 뿌리는 것으로써 ‘우주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향후에는 보다 더 다양한 방법과 장소에서

산골 형태가 개발되고 등장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장사법의 산골 관련 규정이 없이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시설’의 설치규정만 언급하고 있고 강·산·바다에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것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점이다. 화장한 유골을 강이나 산에 뿌리고 싶다는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안내 멘트를 이용할 수 있다. “화장한 유골을 아무데나 뿌리면 안되고 뿌릴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입니다.” 사실 화장한 유골은 성분이 탄소와 그 밖의 무기질 덩어리이다 [2]. 무기질은 환경에 유해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에 뿌려도 과학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화장한 유골을 놓아두면, 공공시설, 변화가 등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뿌릴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화장한 유골에 대하여 심미적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사회적 합의라고 할 수 있는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 산골이 이루는지는 장소는 강 또는 산, 바다, 공설화장시설, 사설법인 장사시설, 그리고 기타 장소로 분류해 볼 수 있다[Table 1].

표 1. 산골이 이루어지는 장소별 특징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places where scatter cremated ashes.

장 소	특 징
공설 화장시설	- 유택동산이라고 하는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시설’
사설법인 장사시설	- 여러 유골을 자연장지에 합동매장 후 합동추모비를 세우기도 한다 .
강 또는 산	- 표식을 남기지 않고 자연 상태의 장소에 뿌린다.
바다	- 해양장이라 하며 해안선에서 부표로 표식을 남긴다. 선박을 빌리는데 비용이 발생한다.
기타	- 종교시설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산골장을 조성하여 이용하고 있다. - 우주장은 고인의 유해를 캡슐에 담아 우주공간으로 쏘아 올리는데 고비용이 발생한다.

2. 산골시설의 현황

장사법 시행령 제2조(화장시설의 부대시설)에는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시설’이 명시되어 있다. 산골시설은 ‘유택동산’이라는 이름으로 공설화장시설에 설치되어 있다. 유택동산은 1993년 용미리 제2묘지에 처음 세워졌는데 한탄강을 비롯한 주변에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것이 문제가 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졌다. 2015년에는 장사법 개정을 통해 시행령 제11조와 제18조의 별표에서 공·사설 화장시설의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시설’(이하 산골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전국 공설화장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산골시설 현황조사를 위해 전화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공설화장시설내 산골시설이 있는지, 있다면 명칭은 무엇인지, 이용료는 있는지 조사하고,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에서 「장사등에 관한 조례」를 인용하였다 [3]. 전화통화가 불가능했던 3개소(영주, 밀양, 고흥 소록도)와 화장시설이 폐쇄된 진해화장장을 제외하고 산골시설이 있는 화장시설은 총 42개소였다. 그 중 부산의 영락정과 울릉군의 산골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40개소 모두 산골시설의 명칭은 유택동산이었다[table2]. 산골시설이 없다고 답한 화장시설은 13곳이었는데 모두 장사법에 산골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한 2015년 이전에 설치된 화장시설들이었다[table2].

표 2. 전국 공설 화장시설 유택동산 현황

Table 2. Hill of Grave Status of Public Crematorium in Korea

지역	장사시설	뿌리는 시설	이용료	지역	장사시설	뿌리는 시설	이용료
부산	부산영락공원	영락정	무료	충북	제천시 영원한섭터	없음	-
대구	명복공원	없음	-		청주시 목련공원	유택동산	무료
인천	인천가족공원	유택동산	관내 일반 10,000원 기초 5,000원 관외 50,000원		충주시 하늘나라	유택동산	무료
광주	광주영락공원	유택동산	무료	충남	공주나래원	유택동산	10,000원
대전	대전시정수원	없음	-		천안추모공원	유택동산	무료
울산	울산하늘공원	유택동산	관내 10,000원 기초·유공자 무료		홍성추모공원	유택동산	관내 일반 10,000원 기초 5,000원 관외 10,000원
세종	세종 은하수공원	유택동산	무료	경북	경주하늘마루	유택동산	10,000원
제주	양지공원	유택동산	무료		구미시 추모공원	유택동산	10,000원
경기도	수원시연하장	유택동산	무료		김천시 화장장	없음	-
	영생관리사업소	유택동산	관내 일반 10,000원 기초 1,000원 관외 30,000원 기초 2,000원		문경 예송원	유택동산	무료
	용인평온의숲	유택동산	관내 10,000원 관외 30,000원		상주시승천원	유택동산	무료
강원도	동해시승화원	없음	-		안동시영면원	유택동산	관내 10,000원 기초·유공자 무료
	속초시승화원	유택동산	무료		영주시 화장장	-	-
	솔향 하늘길	유택동산	10,000원		울릉군 화장장	산골장	무료
	원주시립	유택동산	무료		의성군 화장장	유택동산	무료
	인제종합 장묘센터	유택동산	무료		포항시구룡포	없음	-
	정선하늘터	없음	-	포항시 우현 화장장	없음	-	
	춘천 안식원	유택동산	무료	경남	고성군 화장장	없음	-
태백시 화장장	유택동산	무료	김해추모공원		유택동산	무료	
전북	군산시승화원	없음	-		남해추모누리	유택동산	무료
	남원시승화원	유택동산	20,000원		밀양시 화장장	-	-
	정읍서남권 추모공원	유택동산	20,000원		사천시누리원	유택동산	무료
	익산시정수원	유택동산	관내 20,000원 관외 40,000원		진주시 안락공원	없음	-
	전주시승화원	없음	-		창원시 마산 화장장	유택동산	무료
전남	광양시 화장장	유택동산	무료		창원시 상북공원	유택동산	무료
	소록도 화장장	-	-		통영시 추모공원	없음	-
	목포추모공원	유택동산	10,000원		진해 화장장	폐쇄	-
	순천시 추모골원	유택동산	10,000원	함안하늘공원	유택동산	무료	
	여수공설 화장장	유택동산	무료	서울	서울시립승화원	유택동산	무료
			서울추모공원		유택동산	무료	

전화 조사결과 대부분의 유택동산은 화장장 건물 밖 별도의 옥외시설로 설치되어 있으며 면적도 매우 협소하였다. 유택동산 시설의 내부는 합동유골함과 제단이 있고 화장한 유골을 뿌릴 때는 합동유골함의 투입구에 화장한 유골을 뿌리도록 되어 있다. 합동유골함 아래에는 화장한 유골을 모아두는 합동유골 처리함이 있는데 모아진 유골을 밖에서 볼 수 없도록 콘크리트 외벽으로 가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화장한 분골이 합동유골 처리함에 뿌려지고, 합동유골 처리함이 가득 차면 모아진 분골을 자연장지로 옮겨 합동 매장하는 형식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다. 일부 화장시설에서는 유택동산을 이용하고자하는 가족에게 유골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유골포기각서’를 받는 화장시설도 있었다. 유택동산은 74.1%가 이용료 없이 무료로 운영하며, 유료 운영을 하고 있는 화장시설은 총 15개소로 전체 화장시설의 25.9% 정도로 확인되었다. 이용요금은 유택동산의 유지를 위해 유택동산 이용신청서 및 자료보관, 행정관리비용, 유택동산 만장시 자연장으로 개장하면서 발생하는 처리 작업비용과 합동매장 했음을 알리는 비용 등으로 이용하고 있다. 유택동산의 이용료는 대부분 일만원 정도이고 이용건수는 평균 약 5.0% 수준이었는데,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가 무료로 이용하고 있어서 이용료 수입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선행연구 고찰

산골과 산골시설에 대한 선행연구 자료는 거의 없어 간접적으로 봉안시설, 자연장, 수목장 그리고 해양장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였다. 종교적인 면에서 보면 불교에서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물질이 죽으면 생명은 윤회하고 육신은 본래의 지수화풍(地水火風)으로 환원된다는 관념이 있어서 화장한 인간의 골분은 혼이 빠져나간 껍데기인 육신이기에 때문에 육신에 집착하지 않고 산골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으며 불로 화장하는 것은 불의 정화력으로 시신을 깨끗이 한다는 뜻이 있다고 하였다 [4]. 화장 후 봉안이용이 많기 때문에 시설을 확충해야 하지만 님비현상이 있으므로 봉안시설을 고급화하여 기피시설로 인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연구도 있었다 [5]. 해양장에 대한 연구에서 봉안문화의 문제점을 해결할 대안으로 해양장을 자

연장의 범주에 포함하였다. 해양장의 경우, 장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어서 관련 사업자나 허가증 없이 개인의 어선을 이용하여 유료운영을 하기도 하므로 법을 재정비해서 장사법에 해양장을 규정할 것을 제언하였다 [6]. 사람들이 수목장을 선호하는 요인을 연구하면서 나무를 통한 추모가 심미적 요인과 공익적 동기가 어우러져 긍정적이라 선호하지만 실제 이용률이 저조한 것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공동추모목을 세우고 주변 조경을 조성하여 수목형 자연장과 잔디형 자연장의 이용수요를 촉진한다는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7].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산골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지금은 분쟁이 많고 희망자가 적으므로 자연장과 봉안당의 장점을 접목한 추모모델로써 봉안시설내에 자연장지를 마련하여 대를 물려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8]. 수목장에 대한 의식조사에서 산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산골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에 대해 설문조사했다. 결과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산골장소로 산이 48.1%, 바다나 강이 31.0%로 나타나 강산에 산골을 원하는 사람의 비율이 79.1%로 나타났는데 산에 가장 많이 뿌리고 싶다고 한 결과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반면, 화장장내 산골시설에 산골을 원하는 사람은 7.1%에 달아 상대적으로 낮은 선호도를 기록했다. 사람들이 수목장을 선호하고 나무의 성장을 통해 고인을 느낄 수 있다고 응답한 긍정적 의식조사 결과는 산골 할 때 나무가 있는 산에 산골하는 것을 가장 선호한다는 응답(48.1%)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9].

선행연구에서 산골은 산·강·바다 등에 뿌리는 것만이 아니라 화장하여 깨끗이 자연으로 회귀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자연장과 봉안시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산골이 보완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그런데 고인의 유골을 산골하는 것이 선호도가 높는데 반해 산골시설을 실제로 이용하는 선호도는 떨어진다. 이러한 원인은 무엇이며 산골시설이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화장시설 종사자들의 산골시설에 대한 의식 조사가 필요했다. 본 연구는 수도권 공설화장시설의 산골시설에 대한 종사자 의식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III. 연구방법

산골은 화장한 유골을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산골시설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도가 낮다는 선행연구결과를 참고하여 화장시설 내에 설치된 산골시설(유택동산)에 대한 화장시설 종사자들의 인식은 어떠한지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수도권 공설화장시설 유택동산의 개선방안 : 현황분석과 종사자 인식을 중심으로’에 사용된 분석자료를 일부 인용하였다 [10].

1. 연구 설계 및 분석방법

1) 연구 설계도



그림 2 설문조사를 위한 연구 설계도
Figure 2. Research blueprint for the survey

설문지는 예비 설문지를 만들어 화장시설 종사자에게 문항이 적절한지 묻고 부적절한 문항은 제거하여 만들었다. 설문지를 배부할 연구의 표본선정은 배부와 회수가 쉬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공설화장시설 종사자 330명으로 정했다. 서울시립승화원, 서울추모공원, 수원연화장, 성남영생사업소, 용인평온의 숲과 인천가족공원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화장시설에 설치된 산골시설에 관하여 응답하도록 진행하였다. 설문기간은 2017년 8월중에 이루어졌고 각 화장시설을 방문하여 회수하였다. 회수한 설문지 326부 중 응답을 완성하지 못한 무응답지 7부를 결측 처리하고 319부를 최종 설문지로 선정하였다. 분석은 Excel 2010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코딩하고 SPSS v.23.0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2) 분석방법

질문은 산골시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산골시설은 어느 정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산골시설의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를 물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근속연수 그리고 직무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표본을 정리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였고 산골시설의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한 자료는 복수응답을 얻어 빈도분석 하였다. 산골시설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가하는 인식도 조사는 분산분석을 통해 변수의 그룹에 따라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고 Bonferroni 사후검정을 하였다. 산골시설은 어느 정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분석은 각 변수들 간의 관계를 교차분석하였다.

2. 분석

1)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는 서울, 경기, 인천 공설화장시설 종사자로서 성별로는 남자가 70.2%, 여자가 29.8%로 남자 종사자가 여자 종사자보다 많았다. 연령분포는 50대 이상이 42.9%로 가장 많고, 40대와 30대는 각각 26.3%와 24.8%로 비슷했으며 20대 종사자는 6%로 가장 적었다. 근속연수는 10년이상 근속자가 37.6%, 5-9년이 22.6%, 3-4년이 15.7%, 1-2년이 24.1%였다. 직무에서는 시설관리 종사자가 34.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타 종사자인 미화원, 주차관리원, 식당 종업원 등이 23.5%로 많았다. 즉, 화장시설 종사자 중 성별로는 남자가, 연령은 50대 이상이, 근속연수는 10년 이상의 근무자 그리고 직무에서는 시설관리자의 설문조사 참여율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Table 3].

표 3 인구통계학적 통계
 Table 3. Demographic characteristics

변수	구분	기술통계	
		빈도	퍼센트
성별	남	224	70.2
	여	95	29.8
연령	20대	19	6.0
	30대	79	24.8
	40대	84	26.3
	50대 이상	137	42.9
근속연수	1 ~ 2년	77	24.1
	3 ~ 4년	50	15.7
	5 ~ 9년	72	22.6
	10년 이상	120	37.6
직무	시설관리	111	34.8
	행정사무	56	17.6
	상담 및 접수	43	13.5
	안내 및 봉송	34	10.7
	기타(미화원, 주차관리원 등)	75	23.5

2) 산골시설 인식도

산골시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의 질문에 대해 319명의 응답을 ‘전혀 모른다’의 1점부터 ‘잘 안다’의 4점까지 4점 리커드 척도로 측정하고 빈도분석하였다. 이에 대해 316명의 응답을 빈도분석하였다. ‘조금 알고 있다’와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종사자가 95.9%(306명/319명)으로 나타났으며 4.1%(13명/319명)는 ‘잘 모른다’와 ‘전혀 모른다’로 답하였다. 평균은 3.67, 표준편차는 0.594였다(Figur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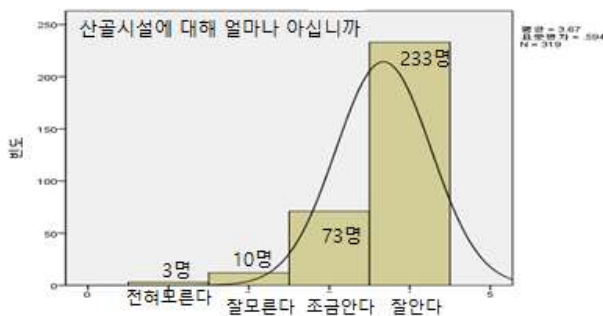


그림 3. 산골시설 인식도
 Figure 3. Awareness about the Scattering facility

빈도분석을 통해 화장시설 종사자들의 인식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고 성별, 연령, 근무연수, 직무 등에 따른 산골시설에 대한 인식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성별, 근속연수, 직무에 관하여 통계적 유의미한 수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성별에서는 남성이, 근속연수에서는 1-2년 근무경력 그룹이, 직무에서는 기타(미화원 및 주차관리원)이 다른 그룹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동일집단 간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bonferroni 사후검정을 수행했는데 성별에서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근속연수에서의 사후검정 결과는 0.001의 유의확률에서 5-9년 종사자가 다른 근무연수의 그룹보다 가장 ‘잘 안다’로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5-9년 종사자>10년 이상의 종사자>3-4년 이상의 종사자>1-2년 종사자의 순으로 인식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또 직무에서의 사후검정 결과는 0.001의 유의확률에서 기타(미화원 및 주차관리원)이 상담 및 접수, 안내 및 봉송, 시설관리 그리고 행정사무에 비해 낮은 평균으로 집단 간 큰 차이를 보였다. 직무에 따른 사후검정 결과는 0.001의 유의확률에서 행정사무>시설관리>안내 및 봉송>상담 및 접수>기타(미화원 및 주차관리)의 순으로 ‘잘 안다’로 나타났다[Table 4].

표 4. 유택동산에 대한 인식도의 분산 분석
Table 4. ANOVA for Scattering Facility Awareness

변수	그룹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성별	남성	224	3.78	.487	24.197	<0.001
	여성	95	3.43	.739		
연령	20대	19	3.58	.507	2.035	0.109 a,b,c,d
	30대	79	3.77	.505		
	40대	84	3.56	.750		
	50대이상	137	3.70	.534		
근속연수	1-2년	77	3.38	.828	9.644	<0.001 a<b,a<c,a<d
	3-4년	50	3.76	.476		
	5-9년	72	3.83	.411		
	10년이상	120	3.73	.480		
직무	시설관리	111	3.74	.534	11.303	<0.001 a>e,b>e,c>e,d>e
	행정사무	56	3.79	.414		
	상담및접수	43	3.91	.366		
	안내 및 봉송	34	3.79	.410		
	기타	75	3.31	.788		

주: * p<.05, ** p<.01, *** p<.001

표 5. 산골시설 설치 필요 인식도의 교차분석

Table 5. Awareness of the need to install the scattering facility

변수	구분	빈도수					카이제곱 검정값 (근사유의확률)
		필요하지않다 n(%)	보통이다 n(%)	필요하다 n(%)	매우 필요하다 n(%)	전체 n(%)	
성별	남	8(3.7)	36(16.4)	116(53.0)	59(26.9)	219(100)	1.764 (0.623)
	여	5(5.7)	15(17.2)	49(56.3)	18(20.7)	87(100)	
연령	20대	3(15.8)	6(31.6)	8(42.1)	2(10.5)	19(100)	16.893* (0.050)
	30대	2(2.6)	13(17.1)	40(52.6)	21(27.6)	76(100)	
	40대	3(3.8)	16(20.5)	45(57.7)	14(17.9)	78(100)	
	50대이상	5(3.8)	16(12.0)	72(54.1)	40(30.1)	133(100)	
근속연수	1-2년	2(3.0)	13(19.7)	38(57.6)	13(19.7)	66(100)	47.322*** (0.000)
	3-4년	9(18.4)	11(22.4)	15(30.6)	14(28.6)	49(100)	
	5-9년	1(1.4)	18(25.0)	35(48.6)	18(25.0)	72(100)	
	10년 이상	1(7.7)	9(7.6)	77(64.7)	32(10.5)	119(100)	
직무	시설관리	1(0.9)	16(14.8)	65(60.2)	22(20.4)	108(100)	23.759* (0.022)
	행정사무	0(0.0)	4(7.1)	28(50.0)	24(42.9)	56(100)	
	상담 및 접수	3(7.1)	9(21.4)	22(52.4)	8(19.0)	42(100)	
	안내 및 봉송	0(0.0)	9(26.5)	15(44.1)	10(29.4)	34(100)	
	기타 (미화원, 주차관리원 등)	5(7.6)	13(19.7)	35(53.0)	13(19.7)	66(100)	

주: * p<.05, ** p<.01, *** p<.001

3) 산골시설 필요에 대한 의식조사

산골시설은 어느 정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산골시설에 대해 ‘알고 있다’로 답한 306명에 대해서만 응답을 받았다. ‘산골시설이 필요하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필요하다’의 4점까지 4점 리커드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하고 결과는 교차분석 하였다. 조사 결과 성별, 연령, 근속연수 그리고 직무에서 ‘산골시설이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의 응답이 모두 과반수가 넘었다. 특히 직무에서 행정사무 종사자는 ‘필요하다’(50.0%)와 ‘매우 필요하다’(42.9%)의 비율이 92.2%로 산골시설의 설치에 대한 필요의식이 높았다. 또한 50대 이상의 종사자와 10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에서 산골시설이 필요하다는 의식이 높았다. 반면 ‘필요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직무 중 행정사무 종사자와 안내 및 봉송 종사자에서 단 한명도 없었다. 20대가 15.8%(3명/20대 19명), 근속연수에서는 3-4년의 종사자가 18.4%(9명/3-4년 49명), 직무에서는 기타(미화원, 주차관리원 등) 종사자가 7.6%(5명/66명)로 산골시설이 필요없다고 응답하였다[Table 5].

4) 산골시설의 개선할 점

전체 설문지 319부에서 산골시설에 대해 모르며 동시에 산골시설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종사자(20명)을 제외하여 총 299명에게 산골시설의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 하였다. 중복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총 433개의 응답 자료를 빈도분석하였다. 여러 유골이 섞이는 시설상의 문제가 23.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관련 법규가 없다는 점이 18.2%로 높게 나타났다. 개선할 사항이 없다고 응답한 종사자는 약12%(11.8%)로 나타났지만 나머지 공설화장시설 종사자들(80% 이상)은 산골시설에 대해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산골시설을 위한 관리자가 없다는 점 10.2%, 산골시설의 이름인 유택동산의 부적절한 명칭 8.1%, 산골시설 청소 등 관리 소홀 6.7%, 산골시설의 위치가 외진 곳에 있어서가 5.8%로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6].

표 6. 산골시설의 개선할 점

Table 6. Improvement point of Scattering Facility

개선사항	빈도	
	N	%
여러 유골이 섞이는 시설상의 문제	102	23.6%
관련 법규가 없다는 점	79	18.2%
조형물이나 상징물 등 추모시설로서 부족	68	15.7%
개선할 사항이 없다	51	11.8%
산골시설의 이용과 관련한 책임 관리자 부재	44	10.2%
유택동산이라는 부적절한 명칭	35	8.1%
산골시설 주변의 청소 관리 소홀	29	6.7%
산골시설의 위치가 외진 곳에 있어서	25	5.8%
합	433	100.0%

3. 시사점

수도권 공설화장시설의 종사자들은 근무지 화장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시설’인 산골시설에 관하여 인식이 높고 시설의 필요에 관한 의식도 높게 나타났다. 산골시설에 대해 ‘전혀 모른다’와 ‘잘 모른다’라고 답한 종사자는 1-2년 근무자 14.2%(11명/1-2년 77명)가 가장 많았고 3-4년 근무자 2.0%(1명/3-4년 50명), 5-9년 근무자 1.4%(1명/5-9년 72명)였는데 10년 이상 근무자 0%(0명/120명)로 근무연수가 10년 이상인 종사자에서는 산골시설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무별 종사자에서는 기타(미화원, 주차관리원 등) 종사자 12%(9명/기타 75명)가 산골시설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했는데 이러한 결과는 입사경력이 1-2년으로 짧고, 산골시설을 관리해 본 경험이 전무한 기타 직무에 속하는 식당 조리원이나 실내 미화원 등으로 추정된다. 반면, 행정사무 종사자와 안내 및 봉송 종사자는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이 한사람도 없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특히, 사후검정으로 알아본 결과, 0.001의 유의확률에서 행정사무>시설관리>안내 및 봉송>상담 및 접수>기타(미화원, 주차관리원 등)의 순으로 ‘잘 안다’고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산골시설이 시설로서 설치되는 되어 있으나 이용률이 높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산골시설의 설치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은 산골시설을 모른다고 응답한 종사자 13명을 제외한 나머지 종사자 306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미가 있다. 산골시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연령에서는 50대 이상(84.2%)에서, 근속연수에서는 10년 이상의 종사자(91.6%)에서, 직무에서는 행정사무 종사자(92.9%)에서 높게 나타났다. 산골시설에 관한 이러한 응답 결과는 공설 화장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관심이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산골시설의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개선할 사항이 없다’고 응답한 종사자가 11.8%(51명/433명)로 나타나 나머지 80% 이상의 공설 화장시설 종사자들은 유택동산에 대해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중 여러 유골이 섞이는 시설상의 문제가 23.6%(102명/433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관련 법규가 없다는 점이 18.2%(79명/433명), 추모시설로서 부족하다는 점이 15.7%(68명/433명)였으며, 그 외에 산골시설의 책임관리자 부재, 유택동산이라는 이름이 부적절하다는 점, 산골시설 주변의 청소문제, 산골시설의 위치에 대한 문제점 등 다양한 부분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유골이 섞이는 시설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수목장에 대한 의식조사 연구에서 ‘산골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 산에 뿌리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48.1%, 바다나 강이 31.0%, 연고지가 11.2%, 화장장 내 산골시설이 7.1%로 나타났는데 강·바다·산을 선호하는 비율이 79.1%로 나타나 사람들은 산골을 하더라도 화장장 내에 산골시설인 유택동산에 뿌려 여러 유골이 섞이는 것보다 대자연에 자유롭게 뿌리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관련 법규가 없다는 점’이 18.2%로 나타났다. 2016년 장례문화 시민토론회에서 홍콩 특별 행정구에서 봉안수요를 줄이기 위한 산골장려정책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 공설 화장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유택동산을 산골시설로 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발표하였다 [11]. 학계에서 세미나, 토론회나 학술대회에서 연구하고 발표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공설 화장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가치가 있다. 산골을 망설이는 일반인들에게 종사자들의 설명은 산골시설 이용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공설 화장시설 종사자의 산골시설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화장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산골시설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산골시설에서 시급히 개선할 점은 화장한 유골들이 섞이는 점이다. 유가족들이 고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장소가 없다는 것이다. 화장 후 유골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봉안당 또는 자연장지를 이용하는 비율이 산골시설을 이용하는 비율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봉안당을 선호하는 이유는 고인을 애도하는 장소, 언제든 찾아가 고인을 기리고 추억하는 장소의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산골시설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산골시설의 다양화와 현대화가 필요하다. 화장한 유골은 실내에 설치한 수변시설을 이용하여 밖의 정원에 뿌려지는 등 지금과는 다른 방법의 ‘흫뿌림’을 기획하면 된다. 특히 4차 산업의 IT기술을 접목하여 추모영상기기를 설치하고 고인의 정보를 입력해 대상별 추모가 가능한 첨단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한다.

공설 화장시설 종사자들의 산골시설에 대한 시급한 개선할 점에 두 번째로는 ‘산골관련 법률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자연장이 매장 방식이기 때문에 매장과 자연장의 개념 정의에 대한 일부개정과 산골의 규정이 필요하다. 화장한 유골을 땅에 묻는 것도 매장으로 인정하고 묻는 것 뿐 아니라 뿌리는 산골도 자연장에 포함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면 연못장, 추모비장, 우주장 등 다양한 산골 분야가 자연장으로 인정된다[Table 7].

또한 산골의 법제화가 이루어지면 공중·강·바다·산 등 화장한 유골을 처리하는 장소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단지, 산골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해야 한다고 기본원칙을 세우고 구체적인 장소를 지정해주는 방식으로 확대해 나가면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산골을 진행할 수 있다.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화장수요가 늘어나고 화장한 유골의 처리에 대한 고민을 덜어줄 대안이 산골이다. 산골이 법률로 규정되고, 산골시설이 봉안의 기능을 갖추면서 화장한 유골을 처리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시설로서 개선되어지길 기대한다.

표 7.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의 개정 조항

Table 7. Amendment to Article 2 (Definitions) of 「Act on funeral Services, Etc.」

현행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	신설 조항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 이하중략 : 3.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 이하중략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유골 및 화장한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 이하중략 : 3.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매장하거나 산골하는 것을 말한다. : 이하중략 : 17. “산골”이란 화장한 유골을 가루로 만들어 지정된 장소에 뿌리는 것을 말한다.</p>

References

- [1] Mi-Rae Gu, Korean Life Ritual Dictionary, Encyclopedia of Korea folk, 2019.
- [2] Kyu-Sung Hwang, Morphology and Chemical Composition Analysis of Human Cremated Ash by SEM/EDS(JCCT), Vol. 1, No. 2, pp. 65-69, 2015.
- [3] http://www.elis.go.kr/newlaib/renew_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28000007010009&isClose=0
- [4] Bok-Soon Park, Understanding of cremation, Korean Nationwide Council for Funeral Culture Reform, 2017.
- [5] Hyung-Sam Park, A Study on Interior Design Planning Charnel Center, Hongik University, 2008.
- [6] Seon-Jae Lee, A Study on the Settlement of inshore Ashes Dispersement for Land Resources Efficiency, Dongguk University, 2017.
- [7] Jae-Wook Woo,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Based on the Preference Factor Analysis on Tree Burial, Korea University, 2013.
- [8] Jee-Seok Seo, Application Plan of Land Resource Efficiency and Utilizing Memorial Facility for Mourning of the Bereaved Families, Dongguk University, 2016.
- [9] Jin-Hawn Kim, A Study on Perception of a Funeral Culture about Woodland Burial, Dongguk University, 2005.
- [10] Yun-Ju Nam,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Garden of Grave at the Public Cremation Facilities in Seoul Metropolitan Area, Eulji University, 2018.
- [11] Tae-Ho Park, Civic Discussion for Funeral Culture, Facilities Management Office of Seoul, 2016.
- [12] Pil-Do Lee, Awareness of Funeral Culture and Well-Ending and Policy Implications(JCCT), Vol 4, No. 4, pp. 67-75.
- [13] Jae-Sil Choi, Comparison in the usage of the Public Cremation Facilities Located in Seoul through the Online Reservation Service of Ehanul Funeral Information System(JIIBC), Vol. 18, No. 2, pp. 125-131, 2018.